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무에 담긴 한국전쟁의 자취

‘평화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가 있다. 물론 식물분류학에서 붙인 이름은 아니고, 일반에 통용되는 이름도 아니다. 나무 곁에서 나무를 소중히 여기며 나무와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붙인 이름이다. 식물학에서 부르는 나무 종류는 ‘왕버들’이고, 나무가 서 있는 곳은 대전 중촌동 아파트 단지 한 귀퉁이다. 나무에 ‘평화의 나무’라는 이름을 붙인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서 있는 주변의 웅장한 빈터를 ‘평화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층 아파트가 늘어난 지금의 중촌동은 옛 대전감옥 자리다. 1917년 즈음에 일제는 감옥을 지으려 계획했는데 삼일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하자, 더 많은 만세운동 참가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 서둘러 완공한 감옥이다. 그로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 여운형·김창숙·박헌영 등 유명한 독립투사들이 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일제 침략자들이 몰려간 뒤 대전감옥은 ‘대전형무소’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전형무소에 참혹한 피바람이 불어닥친 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였다. 그때까지 대

전형무소에는 많은 죄의 인사들이 수감돼 있었다. 전쟁이 터지자 급하게 피신해야 했던 형무소 측에서는 수감자들을 집단으로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의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밝혀진 사실이다. 1800명이 희생됐다고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물론이고 학살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은 알 수 없다.

이러한 학살의 피바람이 지나고 대전형무소는 이북에서 내려온 북한군에 의해 장악됐다. 우익 인사들이 수감되는 건 자연스런 순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상륙작전으로 피난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친 북한군은 수감 중인 우익 인사를 참혹하게 학살했다. 이때 목숨을 잃은 우익 인사는 15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역시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한국전쟁 때의 가장 참혹한 비극 가운데 하나인 대전형무소 학살의 흔적은 그러나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겨우 옛 형무소의 흔적인 망루와 우물만 문화재자료로 보존되고는 있지만, 고층 아파트 숲에 묻혀 그 존재감이 희미할 뿐이다.

물리적 자취는 모두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전 지역에는 한국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쟁 때 희생된 좌우익 인사의 후손과 관계자들이 이 지역에서 살림을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들 사이의 화해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를 떠낸 한국전쟁 기념식조차 우익 인사 중심의 기념식과 좌익 인사 중심의 기념식을 따로따로 치르는 상황이라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의 전언이다.

참혹한 역사의 상처가 채 잊어지지 않은 비극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생각을 모았다. 지나간 아픔의 역사는 무조건 갇아놓는다고 치유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치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역사 탐험대’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역사를 진지하게 찾고 이를 제대로 알고자 했다. 전쟁의 자취는 모두 사라졌지만, 피로 물들었던 학살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한 그루

의 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중촌마을 아파트 단지 ‘한켄’에 홀로 선 ‘왕버들’이었다.

백 년쯤 된 왕버들은 9m 정도까지 자랐으며 나뭇가지를 사방으로 14m 정도 펼쳤다. 중심 줄기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두 갈래로 나누어졌지만 줄기가 잘 썩는 왕버들임을 감안하면, 비교적 건강한 편이다.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단언할 수 없지만, 일제 침략자들이 감옥을 짓고 감옥 주변의 연못가에 풍치수로 심었던 나무 가운데 한 그루임이 분명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한 그루의 나무야말로 학살의 참혹한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할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했고, 이 나무를 ‘평화의 나무’라 이름했으며, 나무앞에 사연을 담은 입간판을 세우기까지 했다. ‘나무에게 옛 상처를 묻고 그 상처의 진상을 드러내는 게 평화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무에는 사람살이의 역사가 온전히 담겼다. 호국 보존의 달, 현충일 아침에 찾아보는 한 그루의 나무에 담긴 우리의 아픈 역사다. <나무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스트레스의 과거와 현재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더 많은가?’ 보다 ‘이전 세대와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묻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세대가 바뀌고 사회와 문화도 모두 바뀌어 가고 있다. 게다가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 보다 훨씬 빠르다. 항상성의 개념에서 변화한다는 것은 개체에게 스트레스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허우적거리게 하는 스트레스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라는 점이다. 취업에 대한 부담,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우내기 위한 노력, 노년의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아야 하는 일 등이다. 전쟁이나 사고와 같은 위협적인 사건들은 즉각적이고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우리 몸은 이 변화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생명의 위협은 달하지만, 지속되는 매일의 스트레스는 느린 속도로 서서히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직장 생활에서 경험하는 ‘번아웃’ 증후군이 한 예이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을 증가시키는 운동, 충분한 휴식, 긍정적 사고 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키울 시간은 매우 부족하다. 실상가상으로 이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스트레스를 마주하게 되

면 우리 몸은 대항하지 못하고 나가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믿게 되는 ‘스트레스’이다. 노동한 만큼 결과가 눈에 보이는 농경 사회에서 점차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식과 정보의 접근은 너무 쉽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미래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과다한 정보는 일회 감치 포기하게 만들거나 학습된 무기력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 SNS를 하며 우리는 타인과 나의 삶에 대해 끊임 없이 비교하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경험한다.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간접 경험을 통해, 나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타인의 삶을 내 삶과 연결 지어 버리고 만다.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있다. 만약 인터넷에서 ‘헬조선’을 접하게 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 사회에서 이미 내 능력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 과거 부두교 신자들이 아무런 건강의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큰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는 주술적 믿음만으로 차례로 사망한 사건은 인간이 통제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 스트레스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집단화보다 개인화가 지향되고, 직접 경험보다 간접 경험의 양이 더 많아지는 사회일수록 자칫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스트레스 양상이 보다 복잡하고, 지속적이고, 때로 통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잡함이 보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시 스트레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외적인 자극을 극복하기 위한 생명체의 노력이다. 우리 몸은 새로운 자극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느끼며 반응한다. 그 자극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에 대한 긴장을 얼마나 유지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개체를 단련시켜 미래의 스트레스에 대항할 힘을 만들어 준다. 평소 간과했던 신체의 건강과 안정된 휴식, 자극적이고 불안한 가중시키는 인터넷 기사가 아닌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 경험을 찾아보는 것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기고

조금 느리게 가자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에... 그러나 내가 누군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은 한국은행 직원답게 여행 계획도 치밀하기 그지없다.

미리 예약한 완도도 청산도 간 배 시간을 맞추면서 청산도를 제대로 관광하려면 40분 간격의 주말 순환 버스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없다. 완도까지 왔는데 청산도만 보면 섭섭하다. 신지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모래 사장도 걸어보아야 하고, 해상왕 장보고의 청해진 유적지를 놓치면 어찌 완도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완도 수목원은 청해진 유적지에서 16km 떨어진 곳으로 23분이 소요되니 배 시간을 감안해서 수목원 관광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청해포구 활영지도 멋진 곳이고 정도로 구계등은 완도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이다. 전북도 먹어야 하고... 나의 1박 2일 여행 계획서는 시간대 별로 빠곡하다.

여행 목적지별 거리와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여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대로 여행을 마치고 광주에 도착했다. 무엇이 남았나? 나를 포함한 대부분 여행객들의 여행 목표는 힐링이다. 더구나 청산도를

가는 사람들은 느낌을 통해 정신없는 일상을 치우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나의 완도 여행은 시간대별로 철저하게 계산되고 조직화된 스케줄에 따라 바빠 움직인 나머지 힐링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정해진 시간을 맞추려 힘들게 쪼다난 스트레스 유발형 고난 여행이 아니었나?

우리나라가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융 위기론까지 서슴없이 제기한다.

과연 우리 경제가 그렇게 취약한가? 필자의 소견은 좀 다르다. 생산성 둔화로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성장을 둔화는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자본 축적도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나머지 투자가 부진하였고,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 컸다.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가 고성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2% 중반 정도의 성장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취업자의 25%)을 국제 수준(OECD 평균 10%)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어쩌면 예견된 것이었다.

경제는 심리다. 낮은 성장률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으로 경제 주체들이 잔뜩 위축되어 있는데, 일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근거가 미약한 금융 위기론까지 서슴없이 언급할 경우 오히려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현상으로 경기 둔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지난 50년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경제가 조금 느리게 가면 어떤가? 성장률이 조금 더디더라도 취약 계층을 보살피면서 같이 가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청산도의 순환 버스를 놓치고 하룻밤을 더 머물렀더라면 이번에 가보지 못한 ‘느림 우체국’에도 들렀을 것이고, 1년 후 느리지만 아름다운 추억 편지를 받아들 수 있었을 텐데... 지나치게 빠르

社說

‘군공항 이전’ 자치단체장 역할도 중요하다

국방부가 최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된 무안·영암·해남·신안 등 네 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기로 했으나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법 모색을 위한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정책 토론회’가 잇그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 자치단체장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국책사업인데도 주민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이전 사업의 장기 표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난 의견도 나왔다.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 그리고 사·군이 이전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전남도와 사·군 단체에 해당 사업이 사·도 상생 사업이라는 점을 이용습 광주시장이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날 천정배 의원(민주당·평화, 서구)은 김영록 전남 지사가 지난해 8월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광주 군공항을 옮

길 곳은 전남밖에 없다’고 했던 말을 상기시킨 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 시장과 김 지사 및 자치단체장들이 책임을 지고 군공항 이전에 더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올 상반기 내로 적어도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결정을 해 달라”고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응적인 판단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국책사업이라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부지런히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류일영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의 말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어느 쪽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다. 끊임없는 소통과 토론으로 제자리걸음을 먼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 ‘안전’ 위해 출입구 충분히 확보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역사(驛舍)의 출입구가 설계상 평균 두 개 미만이며 일부는 단 한 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쉽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의회 김집기(민주당·구) 의원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단계로 나뉘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는 모두 44개인데, 이 가운데 실시 설계가 완료된 1단계 구간의 역사는 모두 20개이고 출입구는 37개이다. 역사당 1.9개꼴로 특히 시청역과 삼우역은 각각 한 개밖에 없다.

이는 현재 운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1호선은 20개 역사에 92개의 출입구가 설치돼 있다. 역사당 평균 4.6개이다. 2호선은 출·퇴근 시 최대 200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단 한 곳이라면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해 대형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높다. 물론 광주시는 경전철인 2호선의 역사는 출입구와 대합실을 공유하도록 설계됐으며, 화재나 지진 등을 대비한 시뮬레이션 결과 40초~1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해 법적 기준(4분)을 충족하는 안전한 설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안전 문제만큼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감안해 미리 최선의 대비를 해야 마땅하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증액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출입구 추가 개설을 적극 요구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 설계 중인 2호선 2단계와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3단계 구간도 출입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영화 ‘기생충’은 사회적양극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려 냈다는 평이다. 천민자본주의가 빚어낸 사회적 비극을 담은 시대극이라는 시선도 있다. 봉 감독은 사회적 부조리를 날카로운 눈길과 풍자로 풀어냈는데 대중성과 비극적 상상력 등이 맞물리면서 영화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황금종려상의 후광에 힘입어 기생충의 국내 흥행 돌풍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시망에 따르면 ‘기생충’은

중 전 대통령외 문화 정책이 오늘날 국내 영화계의 변명을 이르고 있다고 했다.

정점은 역시 자유한국당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알랭 들롱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를 진실로 느끼게 되는 역할을 맡았다. 이로 인해 ‘리틀리 중후군’이란 용어가 생기게 됐다”며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배우 알랭 들롱을 거론한 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게 했다”라고 주장해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기생충’

영화 ‘기생충’ 포스터에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라는 글씨

적인 메시지가 보인다. 하지만 이는 쉽게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의 희비극을 표현한 이중적 메타포로 읽힌다. 민생을 경쟁적으로 앞세우면서도 오히려 정쟁으로 이를 외면하게 되는 정치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정치권이 영화 ‘기생충’의 단체 관람에 나선다고 한다. 제발 덕분에 최소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6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220-0632	체 육 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다 자 인 실
220-0642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